

향후 10년, 중국 경제의 10대 변화

KIEP 북경사무소

주요내용

- 2017년 9월 9일, 재경국가주간(财经国家周刊)에서는 「미래 10년, 중국 경제의 10대 변화(未来十年, 中国经济10大变局)」를 게재함.
- 2027년 전후로 중국이 미국의 GDP 규모를 넘어서 세계 1위로 도약하고, 2023년 전후로 1인당 GDP가 1만 2,000달러를 초과해 고소득국가로 진입하며, '중진국 함정'도 벗어나 2025년에는 제조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함.
- 2030년을 전후로는 혁신형 국가 대열 진입하며, 중국 인터넷 산업 및 디지털 경제 수준이 세계 수준 반열에 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함.

1. 이슈 현황

- 2017년 9월 9일, 재경국가주간(财经国家周刊)에서는 「미래 10년, 중국 경제의 10대 변화(未来十年, 中国经济10大变局)」를 게재함.

□ 10월 18일 개막될 제19차 당대회 이후의 5~10년 간 중국 경제 추세를 전망

2. 전망과 시사점

- 2027년 전후로 중국이 미국의 GDP 규모를 넘어서 세계 1위로 도약

□ 최근 중국 경제가 '뉴노멀' 시대로 진입하면서 경제성장률이 계속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잠재적 경제성장률도 점진적 하락

- 향후 중국 경제성장률은 2020년 6.5%, 2025년 5% 내외, 2030년 4% 수준을 기록할 것이며, 이후 상당 기간 3~4%를 유지하며 'L자형 곡선' 형태로 발전할 것임.
- 중미 양국 간 통상 마찰 및 분쟁이 격화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¹⁾'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함.

■ 2023년 전후로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 2,000달러를 초과해 고소득국가로 진입하며, '중진국 함정'도 벗어날 것으로 전망

- 2016년 중국의 1인당 GDP는 8,000달러를 넘어섰으며, 주민 수입 증가와 경제성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목표 달성이 충분히 가능
- 하지만 중국경제가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발전 모델 전환 △경제의 질적 제고 △민생 보장 및 개선 △균등한 기회 부여 등 현재 직면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함.

■ 2030년을 전후로 혁신형 국가 대열 진입

- '뉴노멀' 시대 진입 후 각 영역 개혁심화 및 혁신추동이 중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임을 강조하면서 2020년까지 국유기업 개혁에 있어 실질적 성과를 이뤄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육성
- 중국은 2016년 「“13.5” 국가 과학기술 혁신 규획(“十三五”国家科技创新规划)」을 발표, 2020년까지 국가 과학기술 혁신 역량 순위를 15위까지 끌어올리고, 과학기술 공헌률을 2015년 55.3%에서 60%로 제고시키며, 지식서비스 부가가치의 GDP 비중을 2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

■ 2025년에 중국은 제조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

- 현재 중국 제조업 규모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산업체인 완비 및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높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제조 2025 전략(中国制造2025战略)' 추진을 통해 제조업 강국 반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중국 제조업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 융합을 추진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미래 제조업을 발전시켜 글로벌 영향력과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전망함.

1)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국이 기존의 세력판도를 뒤흔들고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패권국과 신흥국이 무력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일컫는 용어로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 전쟁인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빗대어 표현함.

■ 중국 인터넷 산업 및 디지털 경제 수준이 세계 수준 반열에 진입

- 2016년말 기준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7억 3,100만 명이며, 그중 95%가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로 집계됨.
- 중국은 핀테크 및 인터넷 산업이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 IT 기업들이 통신 뿐 만 아니라 게임, SNS, 인터넷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가치가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전략(互联网+战略)' 추진으로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편

■ 중국 경제의 대내외적 균형 유지

- 오랜 기간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 및 서비스 산업 무역 적자 확대 등 대내외적으로 불균형 현상을 보였으나 향후 중·미 무역 불균형 해소를 포함한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 해외투자를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일대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 중국 기업의 '저우추취(走出去)'를 독려, 위안화 절상 압력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하여 미래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 확보

- 현재 위안화는 중국의 해외투자 및 대외무역에서 결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국제통화 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도 편입되는 등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갖게 됨.
 - 이는 처음으로 개발도상국 통화가 준비통화로 편입되어 중국이 글로벌 금융체제로 융합됨을 의미하며, 위안화 위상 제고 및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통해 향후 금융대국에서 금융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함.


■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각종 사회적 문제 발생

- 10년 후 중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저출산 △저축률 하락 △사회보장제도 미비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샤오캉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고령화 사회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함.
 - 2000년 11월 말 제5차 인구통계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및 60세 이상 인구는 각각 8,811만 명과 1억 3,000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전체 인구의 각각 6.96%, 10.2%를 차지함.

■ 도시화 지속 추진

- 중국의 도시화율은 2030년 70%를 목표로 △토지제도 △호적제도 △사회보장제도 △의료제도 등 각종 사회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생산요소 및 농촌 자원의 융합을 통한 농업현대화와 신형도시화를 추진해 도농일체화를 실현
 - 한편 2016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특색 있는 중소도시 건설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快美丽特色小(城)镇建设的指导意见)」발표를 통해 3대 정책성 은행과 기타 금융기구의 지원을 독려하고, 특색 있는 중소도시 건설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함.
 - 또한 2017년 주택건설부는 「제2차 특색 있는 중소도시 건설에 관한 업무 통지(关于做好第二批全国特色小镇推荐工作的通知)」를 발표하고, 전국 300여 도시에 대해 중국 특색의 산업화 및 도시화 발전 추진

■ 중국 경제 개방 확대 및 심화

- 최근 중국이 제기한 ‘일대일로’ 건설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현재 반세계화 흐름에 대한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방안이 될 것임.
- 중국은 향후 개방을 더욱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실현할 것임.
 - 특히 샤오캉 사회 실현 및 6억 명 규모의 중산층 양산을 위해 외국인 투자 확대를 통한 무역성장 및 상호 이익을 추진하고,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지향해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함. 

참고문헌

- 『未来十年，中国经济10大变局』, 「财经国家周刊」(2017年9月11日)

💡 알립니다

-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